

아이디어창출및

발명의 발상기법

불편하면 해결하라

평소 생활에서 불편을 느껴 화가 나는 일이 가끔 있게 된다. 이럴 때 조금만 생각한다면 좋은 ‘힌트’가 나오게 될 것이다.

우유는 보관의 편리함과 뒷처리가 유리하다는 점으로 가정용 종이팩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종이팩의 우유를 마시려고 윗부분의 풀칠로 밀폐해 놓은 구멍을 양쪽으로 열 때 속의 우유가 외기에 닿지 않도록 완전하게 밀폐되어 있어서 우유가 흘러나오는 곳을 끄집어내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바깥 때 구멍을 열다가 손에 묻거나 우유가 튀어 의복에 묻게 되면 화까지 나게 된다.

이런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종이팩을 조금 개량한 요리사가 있었다.

중전의 종이팩은 풀로 밀폐해 놓은 곳을 양쪽으로 열고, 흐르는 구멍을 앞쪽으로 끌어당기도록 되어 있으나, 그 흐르는 구멍에 별도의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가 풀칠한 부분에서 감추어져 있도록 해 놓은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험 작품을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 우유가 흘러나오는 구멍에 손이 닿지 않으므로 위생적이고 우유가 흘러나오는 구멍을 앞 쪽으로 끌어당길 때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므로 종이팩 안의 우유가 튀어나와서 의복에 묻는 일이 없으며 보다 쉽게 개봉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적게 든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개량된 종이팩은 불편하고 짜증스런 일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해결하려는 마음

가짐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화가 난다고 해서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최근들어 ‘언발란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야릇한데도 그것이 크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이상하고 야릇한데서 오는 독특함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은 물론 일상용품에 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바늘이 왼쪽으로 도는 시계가 개발되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바늘의 회전이 종전과는 반대이기 때문에 숫자판도 반대로 인쇄되어 있다.

이상하고 특이한 발명은 이 뿐이 아니다. 자동차 클랙슨을 함부로 울리면 소음공해가 된다. “비켜주세요. 자동차가 지나가요.”라는 소리를 경적대신 사용하여 보행자들에게 호감을 사는 발명품도 있다. 신사적인 발상이라고 할까,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발성 경적”이란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발성 마이크를 방향지시기와 브레이크, 액셀(가속장치)에 연결시켜서 보행자에게 말소리로 위험을 알려준다고 한다.

또한 “오른쪽으로 돈다” “뒤로 나간다” “먼저 가세요” 등도 있는데, 좁은 길에서 날카로운 경적을 울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며, 사고방지도 한몫을 하게 될 것이다.

손목시계형의 LSI게임도 시장성이 매우 밝다. 걸어가면서 무슨 게임을 하다니?... 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으나, 펜던트에 조합시킨 LSI게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 역시 젊은 층의 패션 악세사리로 많이 팔리고 있다.

얼핏 이상한 발명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는, 또 연대에 따라서는 좋아할 상품으로 될 것이다.

수작업을 기계화해보라

지금도 한가한 시골 장터의 한 모퉁이에는 낫이나 칼, 호미, 괭이 등의 농기구를 대장쟁이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는 대장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대장간에서는 쇠를 숯불에 달궈 두들기고 다시 달구는 일을 계속하는데 이런 되풀이 과정 중 쇠에는 적당량의 탄소분이 섞여들어 가므로 우수한 탄소강철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 대장쟁이는 두들겨 만든 연장의 날 부분을 물에 살짝 적시는 일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그 부분만이 더욱 단단하게 된다(만일 전체가 단단해지면 부러지기 쉬우므로 좋지 않다)

이와 같이 재료를 다 할 만한 대장쟁이가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어려움때문에 후계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리하여 최근에는 이 대장쟁이의 기술을 기계화로 전환하고 있는 곳이 많다. 손으로 만드는 데는 초일류 숙련 기능자라고 해도 하루 30개 정도가 고작이지만, 이에 비하여 기계로는 2백개 이상도 수월하게 생산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복합강재를 사용하고 중요한 날부분은 종전의 대장쟁이 기술을 그대로 살려서 해결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없다.

생산 공정은 재료(1.7mm 두께의 완전 2층강) 뽑기로부터 시작하여 외형을 갖춘다. 다음에 날의 등 부분에 통을 형성하고, 열처리를 한 다음 기계화 생산에 들어간다.

이 날의 능률은 소재가 좋아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 되겠지만 날의 각을 잘 조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계화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이 낫과 괭이의 기계화는 “불가능”일 것이라고 생각한 장인의 기술을 “가능”으로 해결한 실례가 된 것이다. <王>

안

발명특허품 실시알선 신청

내

본회는 생활용품에서 산업기술에 이르기까지 실용화되지 않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발굴, 본지를 통하여 관련기업 및 단체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우수발명의 기업화를 촉진시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케 하고자 “발명특허품 실시 알선”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발명특허품의 실시알선(권리양도, 합작투자, 실시권허여 등)을 원하시는 발명가께서는 소정 양식에 의거 본회에 신청하시면 귀하의 권리내용 및 희망사항을 소개하여 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특허, 실용신안, 의장으로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기업의 발명
2. 신청방법 : 소정 양식에 의거 수시로 접수
3. 게재료 : 무료
4. 접수(문의)처 : 한국발명특허협회 별명장려관(135-7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종합전시장 별관 2층 전화 : 551-5571~2